



우리 본당 가족사진 <웅현5동 세족례 본당>, 1984년 설립

## 입당송 | 시편 130(129),3-4 참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 제1독서 | 지혜 7,7-11

### 화답송 | 시편 90(89),12-13.14-15.16-17(◎ 14 참조)

-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 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햇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 제2독서 | 히브 4,12-13

### 복음 환호송 | 마태 5,3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복음 | 마르 10,17-30 <또는 10,17-27>

## 영성체송 |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라!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꼭듯이 예의를 갖추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택하신 스승님으로 부르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느 정도 예수님을 파악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하느님이심에 대한 확신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의 생각대로 예언자 중의 한 분으로 여겼거나,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 중의 한 명으로 짐작한 듯합니다.(마르 8,27-28 참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면 진작에 그분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등등. 그때까지 야훼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흠 없는 신자임을 자부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마르 10,21)

새로운 계명입니다. 실천에 옮기기 쉽지 않은 어려운 주문입니다. 그야말로 울상이 되고 슬퍼하게 만드는, 듣기가 거북한 소리입니다. 특히 가진 것이 많은 이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한 방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울상이 되고 슬퍼하였으니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떠난 것 같지는 않고 다시 돌아왔다는 내용도 없으니, 그분을 따랐을 리는 만무합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키고 이행한 공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충분히 얻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어

떤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묻기 전까지는 어떤 신앙인의 태도도 지상에서 칭찬받기에는 충분했지만 영원한 생명,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는 역부족인 듯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서 보물을 찾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는 것에 대비되게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은 미워해야 하고,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은 포기해야 합니다.(마태 6,24; 루카 16,13 참조)

얼마 전 가톨릭 신문 2024년 9월 8일 6면을 통해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나라 어린이에게 주신, 기부 천사의 복음 말씀 실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 기부자이기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분이십니다. 저는 많은 이들이 먼저 열심히 노력해서 지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발짝만 더 나아가 하늘에서도 보물을 차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강윤희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용현5동 본당 주임

## 수도원의 기도: 기도로 밝힌 등불

이 기도의 해 동안 봉쇄 수도원의 수도자들은 기도에 전념하는 일에서 분명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남녀 수도자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며 기도를 통한 하느님과 만남에 자기 삶의 핵심적인 부분을 할애합니다.

수도원은 “교회의 자랑이자 천상 은총의 근원입니다. 이 수도 단체의 회원들은 그들의 생활과 사명을 통하여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역사에 대한 하느님의 주권을 증언하며, 다가올 영광을 선취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주님께 대한 교회의 사랑을 독특하게 증언하며,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도적 결실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의 성장에 공헌합니다”(교황 권고 「축성 생활」, 1996.3.25., 8항). “그들의 이러한 소명과 교회의 사명에 비추어, 봉쇄 생활은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할 요구를 최상의 것으로 인식하여 이에 응답합니다”(「축성 생활」, 59항).

세계 곳곳의 수도원에서 수많은 남녀 수도자가 언제나 밝혀주고 있는 기도의 등불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름다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들 수도 공동체가 오는 2025년 희년을 지향으로 삼아,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느님과 더욱 깊은 일치를 이루고, 희망으로 힘을 얻어 기쁨에 찬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줄 것을 청합니다.

**“기도에 전념하십시오”(콜로 4,2): 교회가 지닌 관상의 소명**

바오로 사도는 어떤 어려움이 생겨난다고 하여도 주님과 이루는 항구한 관계 안에 머무르며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 교회는 관상의 소명을 가집니다. 세례 받은 모든 이는 그리스도를 관상하고 그분의 말씀과 자세에서 빛을 받아 그분께 동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주님을 관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일,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언제나 관상 기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상 기도는 하느님 자녀의 기도이며,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열고 더욱더 사랑하여 하느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용서받은 죄인의 기도입니다. 관상 기도는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께서는 저를 보고 계십니다.” 이는 비안네 성인이 아르스의 본당 신부로 있을 때 감실 앞에서 기도하던 한 농부가 한 말입니다. 관상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신앙에 따라 순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상 기도는 침묵이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게 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기도에 합쳐지는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710-2724항 참조).

### 수도원 순례

순례는 회개의 체험, 자기 삶이 하느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2025년 희년을 위한 순례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024년 기도의 해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적절히 준비하여 교구 내의 수도원으로 다음과 같이 뜻깊은 순례를 떠날 수 있습니다.

- 성체 조배, 하느님 말씀의 묵상, 관상, 시간 전례로 이루어지며, 성덕으로 이끄는 그리스도교 덕목들의 일상적 체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의 이 특별한 성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순례.

-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정기적인 수도원 순례.

- 너그려이 응답하여 하느님께 자기 삶을 온전히 봉헌한 남녀 수도자들에게 감사하고, 다가오는 2025년 희년의 영적 결실을 그들에게 의탁하며, 수도원과 그 필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봉헌 예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려는 목적에서 떠나는 순례.

· 2025년 희년을 준비하는 2024년 ‘기도의 해’ 사목 자료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낮선 곳에서 다시 만난 기쁨

정재환 노엘 신부 | 군종교구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소중한 물건을,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만약 그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누군가가 지금 위험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와 나의 가족·이웃·국가를 지키기 위해, 더 넓게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싸워서 무찌르고 이겨서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리 군대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세상이 군대를 바라보는 시선도, 군인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도 이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군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사제를 ‘군인’으로 ‘군종 사제’로 파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군종신부로서 본격적인 사목을 시작한 지 3개월입니다. 신자보다 비신자를 더 자주 만나고, 신자보다 비신자에게 더 많이 교육해야 하는 이 소명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첫 교육을 앞두고 제의가 아닌 군복을 입고 신자가 아닌 장병들 앞에서 교육해야 하는 모습이 마치 지금까지의 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을 ‘사제’라는 하나의 모습으로 일치시켜 준 단어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지금 이곳에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장병들과 함께 생각하고, 그 시간이 ‘사랑’과 ‘평화’라는 단어 속에서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품고 있는지를 나누며, 무엇보다 그들 자신도 여전히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 제 안에도 충만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소중한 누군가를 지켜내기 위해 이곳에 와 있듯이, 성직자는 그런 그들과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직접 활동하시며 직접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욱 굳게 믿으며, 주님께 더욱 희망을 두며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장병들이 종교를, 성당을 찾지 않아 교회 안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빈 공간이 너무나 많지만, 단 한 명이라도 사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느낄 수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이 저를 이곳으로 파견하신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희망 속에서 계속해서 사랑하고자 다짐해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장병이 소중한 존재를 지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복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외롭고 힘들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 전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도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지켜주는 것이 오늘 군인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임을 묵상해 봅니다.



## 한국 천주교 주교단, 사도좌 정기방문

© Vatican Media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는 9월 16일(월)부터 22일(주일)까지 이루어진 7일 간의 사도좌(교황청) 정기방문 일정을 마쳤다. 23명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회원이 참석한 이번 방문은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와 바오로의 묘소 순례, 교황 면담, 교황청 부서 방문을 주요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순교자 대축일

인 20일에는 교황 알현 후 바티칸 정원에서 거행되는 '평화의 모후 모자이크 성화' 축복식에도 참석하였다.

## 제3회 바다의 별 문화예술축제 '합창제'

교구 홍보기자 장민영 클라우디아



9월 28일(토) “꿈, 희망 그리고 미래의 길”을 주제로 제3회 바다의 별 문화예술축제-합창제가 이승훈 베드로 성지기념관에서 진행되었다. 인천교구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이번 합창제는 11개 지구가 각기 연합합창단을 구성하여 경연에 참여하였다.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는 “신자들이 하나로 뭉쳐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는 기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고, 아이언혼밴드의 식전공연, 테너 임웅균 교수의 초청공연과 인천 가톨릭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김일희 빈첸시오 신부(=교구 사무처장)는 하모니를 이룬 합창을 통해 시노달리타스의 모습을 보았으며 참가팀과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남동지구 루체 합창단이 대상(베드로 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참가한 합창단 모두 수상을 해 경쟁보다는 주님을 찬양하는 화합의 무대가 되었다. 이번 축제는 이승훈 베드로 성지기념관에서 인천가톨릭미술가회-미술전, 가톨릭사진가회-사진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교구 홍보기자 장창규 루도비코, 변훈 바오로



9월 29일(주일) 교구 이주사목부(=부국장 김현우 바오로 신부)는 답동 주교좌 성당에서 제110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주례로 시작한 미사는 다국어로 봉헌되었으며 베트남 공동체, 필리핀 공동체, 중남미 공동체를 비롯해 방글라데시, 미얀마,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과 난민 8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미사 후에는 이주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과 공동체 별 장기자랑 그리고 음식 나눔으로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 주교의 환갑을 이주민들이 함께 축하하는 특별한 축하식을 가져 의미를 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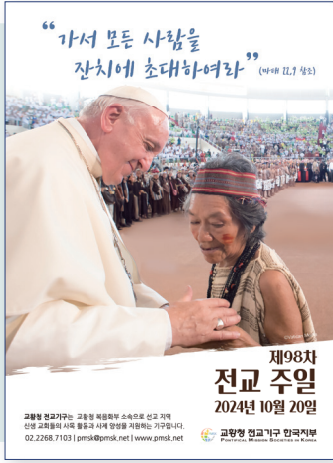
## 영종 본당 찾아가는 연극 '여걸 강완숙 골롬바' 관극

영종 본당



5일(토) 영종 본당(=주임 정성일 요한 세례자 신부)에서 강완숙 골롬바의 삶과 신앙을 다룬 음악극 '여걸 강완숙 골롬바'가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강완숙 골롬바는 박해 시대 열정과 혼신이 가득한 한국천주교회 초대 여회장이며 순교자이다. 주문모 신부를 자신의 집에서 6년간 숨기며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한 한국 교회에서 꼭 기억해야 할 순교자로 상하의 계급 질서를 벗어나 평등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이어갔으며, 가정 복음화와 이웃의 양반과 평민들을 복음화에 전교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다. 이 날 정성일 신부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신도가 지녀야 할 사명감과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쉬운 연극을 통해 느끼고 그 감동을 생활 속에서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 공연 문의 010-3373-1654 방은미 요한보스코



## | 교구 안내 | 전교 주일을 기념하는 선교사의 날과 교리교사의 날

“가서 모든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여라”(마태 22,9 참조)

그리스도인 소명이 복음 선포에 있음을 밝히 가톨릭교회는 10월 셋째 주일을 전교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전교 주일을 기념하는 ‘선교사의 날’과 ‘교리교사의 날’에 선교사와 교리교사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제15차 선교사의 날

일시 10월 19일(토) 10:00~18:00  
장소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

### ◆ 제30회 교리교사의 날

일시 10월 20일(주일) 12:30~16:00  
장소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

## 교 구 청

### 지구를 위한 미사와 환경특강

일시: 10/16(수) 10:00 간석2동 성당  
문의: 032-765-7255 생태환경사목부

### 10월 예비신학교 모임(김포, 강화지구 포함)

일시: 10/20(주일) 10:30~16:00  
장소: 성지순례  
대상: 중1~고2

### 25년 희년 순례 참가자 모집

일시: 7/26~8/9 교구 청소년·청년  
9/20~10/4 교리교사  
장소: 로마, 토리노  
문의: 032-765-6964

## 교 육 | 미 사

### 하느님 자비의 사도모임(천주교 사도직 팔로티회)

강의, 성시간, 미사  
일시: 10/15(화) 14:00~17:00  
장소: 답동 사회사목센터 B1  
문의: 010-3809-0200

### 인천ME 쇠신주말

일시: 11/2(토)~3(주일) 강화 갑곶성지  
문의: 032-761-1015

### 지혜의 샘 피정 프로그램

·묵주 성월 로사리오 피정  
일시: 10/14(월) 10:00~17:30  
강사: 윤창호 신부, 고영민 회장, 한영임 회장  
·신바람 나는 신앙 생활  
일시: 10/30(수) 10:00~17:30  
강사: 한연홍 신부, 고영민 회장, 한영임 회장  
·위령성월 추모 피정  
일시: 11/4(월) 10:00~17:30  
강사: 이상희 신부, 고영민 회장, 한영임 회장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 샘 5층  
문의: 010-3248-9705

### 월요 낮 기도회(갈멜산 성령쇄신봉사회)

말씀 치유, 예언, 안수  
일시: 12:30~17:00(16:00 파견 미사)  
장소: 부천가톨릭교육관  
지도: 오용호 세베리노 신부  
회장: 010-8829-2038 조홍조 사라

### 노들담 찾아가는 ‘숨’ 피정

일시: 평일 저녁, 주말 오후(조울 가능)  
대상: 청년이라면 누구나(청년회, 교리교사회)  
문의: 010-3930-6730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10/19(토)~20(주일), 11/2(토)~3(주일)  
[3박 4일] 10/24(목)~27(주일),  
11/28(목)~12/1(주일)  
[8박 9일] 11/14(목)~22(금), 12/26(목)~25/1/3(금)  
[40일] 12/14(토)~25/1/22(수)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 평신도를 위한 침묵피정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일시: 11/1(금)~3(주일) [2박 3일]  
장소: 시흥시 계수동 성바오로 피정의 집  
접수: 10/24까지 / 주최: 한국CLC  
문의: 02-333-9898(월~금)

###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한라산 눈꽃 산행 접수 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11/7~9, 11~13, 21~23,  
12/1~3, 6~8, 14~16,  
12/29~25/1/1(연말연시, 한라산)  
추자도 포함: 11/16~19, 25~28, 25/3/13~16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 10월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10/15(화) 14:00 도화동 성당

### 이승훈 베드로 성지 후원회 미사

일시: 10/17(목) 14:20 묵주기도, 15:00 미사  
장소: 이승훈 베드로 성지기념관(장수동 산 135)  
문의: 032-765-6916

### 장애인연합회 월례미사

일시: 10/26(토) 11:00 사회사목센터  
문의: 032-761-3992

###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일시: 10/22(화) 11:00 미래사목연구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문의: 031-986-7141

###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장소: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기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말씀여행  
일시: 11/1~3, 15~17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본당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 성경속에서 나를 만나다

일시: 11/7~12/19(목) 10:00~12:00 [7회]  
장소: 계산동 전교가르멜 수녀회  
대상: 여성 신자 15명(선착순)  
회비: 10만원  
문의: 010-2037-9262

## 모 집 | 일반

###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형

성지 성전에 지향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부개2동 성당 추모관 위패 신청자 모집**

천주교 신자면 누구나 가능(타 교구 신자 가능)  
 돌아가신 분은 타 종교, 무교 상관없이 가능  
 일시: 매월 2, 4번째 주(수) 10:00 미사  
 위패 연령을 위한 개별 미사 지향  
 신청금액: 1명(2백), 2명(2백),  
 3명(3백), 4명(4백)  
 살아 계신 분도 신청 가능  
 문의: 032-505-2048

**고잔 성당 사무장, 관리장 모집**

사무장: 문서관리 교회 행정업무  
 및 오피스 가능자  
 관리장: 소방, 가스안전, 전기기술 경력자 우대  
 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교적 증명서, 본당 사제 추천서,  
 자격증 사본(소방, 전기 시설관리)  
 접수: 10/18(금) 17:00  
 면접: 10/19(토) 10:00 사무장,  
 13:00 관리장  
 문의: 010-5332-8531

**강화도 일만위순교자현양동산 사무장 채용**

이메일 접수 galguri@caincheon.or.kr  
 자세한 내용은 ilmanwe.or.kr 참조

**일만위 순교자 피정의 집 관리직원 모집**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희망연봉 이력서 기재)  
 제출: pjung@caincheon.or.kr  
 문의: 032-721-8741

**강화 꽃동네 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남자 어르신 케어 요양보호사  
 문의: 010-7171-9503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신청 방법: 의정부교구 홈페이지-소식-교구소식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안내' 게시물 참조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일시: (월~금) 10:00~16:00  
 문의: 02-990-9366

**사별가족 돌봄을 위한 개인 만남**

부모, 배우자, 자녀 상실의  
 아픔과 슬픔 극복을 위한 도움  
 문의: 010-2081-6462 노틀담수녀회

**예수성심 강화김포 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문의: 010-5245-9300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모임**

일시: 10/20(주일) 14:00 가정동 성당 303호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 여성 누구나  
 문의: 010-3679-7198 강 피아 수녀

**순례 | 기타****해외 성지순례**

· 12/2 출발: 성김대건성지 롤롬보이,  
 마나오 성모발현성지 [5일]  
 · 12/10 출발: 라방, 짝깨우 성모발현성지 [5일]  
 지도사제 동행(미사)  
 문의: 010-5909-5997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2/3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45만원  
 25/1/14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5/3/14 이태리 수도원순례 및 명소탐방 [12일] 545만원  
 25/3/28 사도 바오로 발자취(터키, 그리스) [12일] 480만원  
 문의: 02-722-8366

**해외 성지순례**

11/13~18 베트남 하노이, 다낭 성지순례 [6일]  
 11/28~12/2 홍콩, 마카오 성지순례 [5일]  
 문의: 010-8705-0319 최형베드로

**가톨릭 해외 성지순례**

12/20, 25/1/17 이탈리아 일주(히년 전대사)  
 25/1/7, 2/11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25/1/17, 2/14, 3/14 시칠리아 몰타 일주  
 25/3/10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참고: www.catholictravel.co.kr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전국167, 제주 3박 4일, 베트남, 일본, 마카오 성지순례**

매월 출발, 35만원 / 120만원  
 문의: 010-4239-1929

**국내·외 성지순례**

11/13(수), 23(토) 원주교구 대안리공소,  
 배론성지, 풍수원 등  
 10/21~25 나가사키, 고토  
 11/4~8 다낭 성지순례  
 11/15~19 나트랑, 달랏  
 11/29~12/4 하노이, 양코르왓  
 문의: 010-9200-3532

**성소모임****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일시: 10/19(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살레시오회**

일시: 매월 네 번째(토) 14:00  
 장소: 대림동 수도원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6221-3520

**성모자현애덕의 도미니꼬수녀회**

일시: 10/27(주일) 14:00  
 장소: 부천 도미니꼬 수녀회  
 문의: 010-5166-1275

**| 공모 안내 | 2025년도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과 학술 연구비 지원 대상자 공모**

주교회의는 2008년부터 평신도 사도직 단체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평신도 기금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명도회 장학금'이 꼭 필요한 신자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 부문 ①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 신청 10월 14일(월)~12월 14일(토)
- 제출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cafl@cbck.kr)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bck.or.kr  
 '알림마당 ▸ 소식' 참조

문의 02-460-7533

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

